호남예술제 출신 꼬마 예술가들 '눈에 띄네'

호남예술제 출신으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남린(왼쪽)양과 유지후군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가 올해 60회를 맞았다.

현재 예술가로, 교육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에게 호남예술제는 꿈을 키워준 텃밭이었다. 이제 막 꿈을 향해 날갯짓을 시작한'꼬마 예술가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바이올린의 남린(광주 조봉초 5년)양과 플루트의 유지후(광주 치평초 6년)군이다.

유지후군은 당초 피아노를 치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플루트를 처음 접했다. 방과 후 '1인 1악기 배우기'를 통해 엄마의 권유로 플루트를 배우기 시작한 류 군은 이듬해인 2학년 때 처음 나간 콩쿠르에서 금상을 받게되자 금세 재미를 부쳤다.

4학년 때는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영재 오디션에 합격, 독주회를 열었다.

2015년은 지후군에게 잊을 수 없는 해가 됐다. 호남예술제 2년 연속 최고상, 음악춘추 콩쿠르 1등상 등을 수상한 지후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에도 합격했다.

특히 제36회 서울 금호 영재에 합격해 내년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앞두고 있다. 또 예원중학교에 합격, 내년부터는 서울에서 본격적인 수업을 받게 된다. 지난 10월에는 모나무르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도 가졌다.

선생님들로부터 폐활량이 좋다는 칭찬을 받는 지후군은 하루 종일 플루트를 손에서 놓지 않는 연습벌레이기도 하다. 특히 콩쿠르에 무대에 나설

● 플루트 치평초 유지후군

호남예술제 2년 연속 최고상

서울 금호영재 오디션 합격

한예종 영재원·예원학교 합격

● 바이올린 조봉초 남린양

금호영재오디션 최연소 합격

올 여름 美 카네기홀서 공연

스트라트 피아노 콩쿠르 1위

때도 긴장하지 않는다. 즐겁게 놀이하듯 연주하는 게 그의 최대 장점이다.

"처음 플루트를 배울 때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주 재미있어요. 플루트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 멋진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남 양은 초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2년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초등학교 1~3학년이 경연을 벌이는 저학년부에서는 보통 3학년생들이 최고상을 수상하는 경우가 많아 이례적인 결과였다. 이듬해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이 진행한 '금호영재 오디션'에 최연소 합격, 단독 연주회를 열기도했던 남양은 지난해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 입학했다. 이향희·김동현·김성숙씨를 사사한 남양은 지난 가을부터 '한국 바이올린계의 대모'로 불리는 김남윤 교수 밑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콩쿠르 수상과 협연 무대도 잇따랐다. American Protage Concert Competition에서 1위를 수상, 카네기홀에서 열린 위너 콘서트에 참가한 그녀는 스트라트&인터내셔널 피아노 콩쿠르에서도 1위 입상했다.

또 일본 도쿄 후츠노모리 예술극장에서 도쿄 프라임심포니오케스트라와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 전 악장을 협연했으며 수원시향, 서울시향과 협연무대도 가졌다.

남린 양은 "지난 여름에 카네기홀에서 공연할 때는 너무 행복하고 기뻤다"며 "영재원에서 바이올린 실기 뿐 아니라 문법, 시창, 청음 등도 함께 공부하는데 이론 공부도 재미있다"고 말했다.

남린 양의 꿈은 훌륭한 연주자가 돼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거다. 3년전 처음 인터뷰할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모습인 남린양은 오늘도 바이올린과 함께다.

두 사람은 이제 막 출발점에 섰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펼칠 날을 기대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연극 '애꾸눈 광대' 올 마지막 무대 오른다

23·24·2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전남여고 방문 공연은 27일

연극 '2015애꾸눈 광대'(사진)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극장(23일·24일·26일) 상설공연과 27일 전남여고 방문공연을 끝으로 2015년 무대를 마무리한다.

'애꾸눈 광대'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투쟁하다 한쪽 눈을 잃은 주인공 이지현씨의 이야기를 담은 3인극 연극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애꾸눈 광대'는 5월 진상규명과 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던져온 이씨의 삶을 고스란히 녹여낸 작품으로, 그가 직접 무대에 올라 주인공의 내면을 표현하는 분해된 자아 코러스1, 2 역할과 함께 3인극을 펼친다.

'애꾸눈 광대'는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상설공연 13회를 비롯해 7월부터 11월까지는 '찾아가는 공연-방문공연'으로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와 효령노인복지타운 등 문화 소외지역 총 17곳을 방문, 오월의 아픔을 전달했다.

'애꾸눈 광대' 마지막 상설공연은 오는 23~24일 오후 7시30분, 26일 오후3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찾아가는 공연-방문공연'은 오는 27일에 전남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다. 관람 무료. 사전예약 가능. 문의 062-670-792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출판인들이 뽑은 올해의 책 '중국사상사'

중국 사학자 거자오광의 저서 '중국사상사'(일빛출판사·전2권)가 출판인들이 뽑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국내 출판사 47곳이 참여하는 모임 '책을 만드는 사람들'(책만사)은 올해의 책 대상과 분야별 올해의 책 11권을 선정해 17일 발표했다.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데이비드 프롬킨의 '현대 중동의 탄생'(갈라파고스), 로저 크롤리의 '비잔티움 제국 최후의 날'(산처럼),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 34곳 삭제판 등 3권이 뽑혔다.

문학·예술분야에서는 도나 타트 장편 '황금방울새'(은행나무·전2권), 웹툰작가 억수씨의 '호!'(거북이북스·전3권)가 선정됐다. 어린이·청소년분야에서는 이지훈의 '거짓말 경연대회'(거북이북스), 채인선의 '아름다운 가치 사전'(한울림어린이) 등 2권, 경제경영·실용·IT 분야에서는 박태하의 '책 쓰자면 맞춤법'(엑스북스), 축구선수 박지성의 에세이집 '박지성 마이스토리'(한스미디어)가 뽑혔다. 채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한빛비즈)은 베스트셀러 부문 올해의 책에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재단 19일 콜로키움

임영진 전남대 교수 주제 발표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9일 오후 4시 광주문화재단 별관 아트스페이스 2층 문화예술 작은도서관에서 '광주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4차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임영진(사진) 전남대 인류학과 교수가 '유적, 유물로 본 선사·고대의 광주'를 발표한다. 임 교수는 광주에서 본격적 거주는 신석기시대 이후 청동기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고대 광주의 유적, 유물이 발굴된 신창동유적을 그 사례로 들고 있다. 이후 광주·전남에서는 청동기시대 말부터 마한으로 인식되는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6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마한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주장이다. 문의 062-670-743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